



녹색성장시대와 조경수조성관리사

(Green Growth Era and Landscape Plants Manager)



이경재 | 자격검정출제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조경학과 교수)

10년 전의 외환위기시대와 최근의 경제적 위기시대의 대응이 환경 분야에서는 다르다. 10년 전 외환위기 시대에는 오로지 경제성장을 살려내기 위해 환경 분야를 완전히 무시하여, 환경보전이 경제발전 발목을 잡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다. 최근의 경제적 위기는 10년 전 외환위기시대보다 더 심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탄소배출량안화와 연계한 녹색뉴딜사업을 경제위기 4대 대응방안에 정부는 포함시키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문제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걱정하고 실생활에서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시대는 지구의 온난화방지 등 환경보호를 바탕으로 깔지 않고서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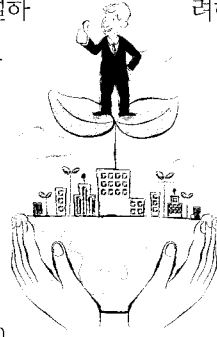
구촌 모든 생물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요즈음 산지형 녹지, 하천변, 도시공원내, 심지어 아파트 완충녹지 등 모든 지역에서 빠른 걸음으로 돌 일병정 같이 걷는 시민, 특히 중년여성, 노인들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주변에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경제성장으로 고밀화된 도시지역에 주거 단지 내에 녹지가 부족하기에 고등동물의 필연적으로 확보해야하는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짐에 따라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공간만 있더라도 하면 지역 주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먹거리가 육식으로 변함에 따라 각종 성인병, 암 발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걸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시민은 매일 걷게 된다. 이런 걷기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 한적한 시골에도

기계적으로 걷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때 현재의 녹지 조성은 “국민의 복지” 분야에 속하게 된다. 조성된 녹지를 보면서 그 속에서 걸을 때 폐가 깨끗해지며,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져, 있던 병도 고쳐지고 각종 질병도 예방되니 이보다 더 중요한 “복지수단”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복지수단으로서의 공원녹지조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조성하던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지금까지는 식재설계도면에 따라 식재하였건만 생물서식처 및 아름다운 녹지 조성에는 관심 없고 토양조건도 고려하지 않았기에 수목식재는 거의 녹색말뚝을 심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인천신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신도시를 함께 조성했다. 7년 전에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이 신도시 북-서-남쪽에 폭 100m의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지역은 매립지 지역이라 배수가 잘 안되기도 하지만 매립시 기반 토양을 증장비로 다져 배수가 되지 않는 척박한 토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폭 100m 완충녹지 중 중앙 산책로 양쪽에 왕벚나무를 심었던 절반정도가 고사하였고, 살아있는 나무도 고사가지가 많아 흉한 녹색말뚝이 되었다.



폭 100m, 길이 4km정도 되는 완충녹지 수목식재를 식재설계도면이 만들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공항건설시 훼손된 산지형 녹지에서 자라고 있던 곰솔,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군락으로 옮겨주는 군락식재를 하였다. 그리고 군락식재공간 사이에는 잔디로 시공하였다. 식재한지 6~7년이 지난 지금은 곰솔, 리기다소나무 군락 옆의 잔디밭에 종자가 떨어져 치수가 뽕뽕하게 자라나고 있어 자연림의 천연하종(天然下種)방법에 버금가고 있다. 지난 11월에 답사했을 때 수고가 0.3~1.5m에 달해 훌륭한 곰솔자연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일부 곰솔, 리기다소나무, 낙엽활엽수, 아까시나무 군락에는 아까시나무 치수가 뽕뽕하게 자라나 아까시나무 순림으로 변

하고 있었다. 이곳을 답사한 날도 지역주민이 속보로 걷고 있어 조경학 전문가로 수목식재 잘못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며 다녔다. 이렇게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화상이다.

공원녹지조성에서 수목식재로 가치 없는 녹지지역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종이 위에 설계 식재” 방법에 연유한다. 종이에 아름답게 채색한 평면적 식재설계도를 작성하느라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 땅에 심는 수목에 대해서는 식재이유, 방법을 무시하기에 이런 식재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수목식재를 위해서는 미적인 면, 수목생리적인 면, 군락생태적인 면, 이용측면, 토양기반 적응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경 수목식재는 종이 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하는 것이기에 식재를 위해서는 식물의 생리, 식재, 관리의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종이 위의 조경수식재를 땅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다루었던 토양학, 비료학, 수목학, 수목식재 및 관리학, 병충해관리학, 경영학 등의 지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절감하고 있었던 조경수협회에서 드디어 칼을 빼든 것이다. 특히 김창욱 회장님, 김용환 부회장의 남다른 고생 끝에 “조경수조성관리사”라는 자격검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조경수협회에서는 2008년 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2008년 8월 26일 조경수조성관리사 자격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11월 8일 제1차 시험, 2008년 12월 6일 제2차 시험을 실시하여 2급 44명, 3급 6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공원녹지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를 위해 서비스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대단한 일을 조경수협회에서 시작한 것이다. 성공리에 제1회 자격검정시험을 마쳤기에 금년에 연이은 시험도 계속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본 자격검정시험에 고생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축하를 드린다. 🌳